



NOVEMBER 2002

# 대한노인정신의학회보

The Newsletter of  
Korean Association for Geriatric Psychiatry

발행처: 대한노인정신의학회 139-707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7동 761-1번지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TEL: 02-950-1906 FAX: 02-936-8069

발행인: 이정호 / 편집인: 정한용 / 등록번호 제2-124호 / 인쇄인: 김영길 / 인쇄처: 인쇄: 중앙문화사 TEL: 02-717-5511 (대) FAX: 02-717-5515

## 권 두 언

### 임금 피크제 도입 후 停年制의 단계적 폐지를...

곽 동 일 (고려대 명예교수, 대남병원장)

우리나라 인구의 고령화 속도가 선진국에 비해 제일 빠르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져 있다. 다시 보면, 2000년에는 65세 이상의 비중이 7.2%였으나, 2010년 10.7%, 2020년 15.1%로 급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선진국에서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7%에서 14%에 이르는 기간이 24-115년이 걸렸는데, 우리나라는 19년밖에 걸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우리는 오는 2019년에 14%를 넘어 고령사회가 된다. 이 추세로 라면 2080년 인구는 3천만명(국민연금 재정분석 전문위 추계)으로 줄고 그 때의 노인 인구는 전체의 38%가 되며, 생산성 인구(15-64세)는 지금의 절반이 안 되는 1,500여 만 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그러나 고령사회를 맞이할 우리 정부나 사회가 부분적인 노인 보건복지종합대책 외에는 현재 이렇다 할 대책도, 준비도 없는 것 같다. 그래도 2003년부터 정로 연금 대상 연령이 69세에서 65세로 낮아지며, 2011년까지 공공치매병원을 현재 28곳에서 90곳으로 늘리고, 2004년 노인약학 전문의 제도를, 2003년 노인전문 간호사 제도를 각각 도입한다니 다행스럽다.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자를 연령에 의해 일률적으로 직업능력을 판단해서 노동시장으로부터 퇴출시키면, 개인의 능력과 창의성 무시, 사회적 자원의 낭비로 인한 사회적 비효율성의 증가, 개인의 경제생활 위협, 연금, 의료보험 등 사회보험제도의 위협, 사회통합의 저해, 그리고 부양비 등 사회적 부담의 증가를 초래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그래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한국에 고령 근로자의 고용기간 연장 등 고용 안정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권고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청년 퇴직 연령 상한 조정, 연공(年功) 임금제 개혁, 고령 노동자의 임금 보조와 연령차별 금지 입법 등이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도 구미 선진국과 같이 「정년제를 폐지하자」는 여론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개인의 능력과 상관없이 기업이 정한 나이를 기준으로 퇴출시키는 단순 정년제를 폐지하고, 연령차별을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외환 위기 이후에 정년은 55세인데, 40-50대가 직장을 떠나야 하는 최고 고용불안 사회가 되었다. 장기적으로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국민연금의 수급시기인 60세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정년이 연장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연공서열형(年功序列型) 임금구조에서, 우선 임금과 생산성이 일치하도록 성과급, 직무급으로 전환한 후 단계적으로 정년제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또 현재 정년제 폐지의 조건으로 거론되고 있는 임금체계 개편방안 중 하나인 임금 피크(Salary Peak)제가 있는데, 일정 연령 이후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장기근속직원에게 임금을 줄여서라도 고용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일본, 미국,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 공무원과 일반기업 직원에게 적용하고 있다. 노년기가 되면 과연 생산성이 하락하는가 하는 것이 사회적인 쟁점이다. 노인이 되면 지능, 체력과 근력 등이 떨어진다는 것이 강조된다. 소위 지능(IQ)검사에 해당하는 비판 지능은 노년기에 하락할 수 있으나, 필터 현장에서 필요한 실용 지능은 오히려 높아진다. 경험에서 얻는 실제적 사고, 전문기술, 축적된 지식, 기술의 활용과 지혜 등은 유지되거나, 오히려 향상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능력 있는 노인이 어느 분야에서나 정년에 무관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것이 노인의 삶의 질은 물론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소위 선진국이 되는 길이 아닌가 생각한다. 우리 대한노인정신의학회도 고령화 사회, 고령사회에서 노인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기초, 임상 연구 및 진료 외에 노인정신과 전문요원 교육은 물론이고 학회가 어떤 몫을 담당할 것인지 사업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고, 정부에 무엇을 건의할 것인지, 또 노인능력에 대한 사회 편견을 불식하기 위해 노화과정과 생산성에 관한 과학적 연구도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하겠다.

새 시대, 고령화 시대, 고령사회에서는 「잘 늙은 신노인」이 신능력 집단으로서 노후에도 사회, 국가 발전에 기여해서, 가정과 사회에서 노인들이 존경받는 나라가 되길 기대해 본다.

# 대한노인정신의학회 2002년 추계학술대회 및 주요일정

	연 제 및 연 자	일시 및 장소
추계연수교육	<b>심포지움</b> <b>주제 : Revisiting Dementia Clinic</b> ① Welcoming speech -이정호(이사장) ② Keynote speech -박종한(차기이사장) ③ Strategic evaluation for the treatment planning of memory impairment -김도관(성균관의대) ④ An update on therapy for cognition and function -김성운(울산의대) ⑤ Management of disturbed behavior -김기웅(서울의대) ⑥ Case discussion, Q & A	<b>일 시</b> 2002년 11월 15일(금) 오전 9:30-12:00  <b>장 소</b> 리츠칼튼호텔
추계학술대회	<b>심포지움</b> <b>주제 : Ageing Society and the Elderly</b> <b>I. Ageing Society and Dementia</b> ① Ageing in Korea : Future perspective -배상수(한림의대) ② Dementia in Korea : Future projection -서국희(한림의대) ③ Panel discussion -선우덕(보사연), 조맹제(서울의대)  <b>II. Advances in psychiatric disorders in the elderly</b> ① Dementia -이창욱(가톨릭의대) ② Depression -정한용(순천향의대) ③ Anxiety disorder -류성곤(한림의대)	<b>일 시</b> 2002년 11월 15일(금) 오후 2:00-5:20  <b>장 소</b> 리츠칼튼호텔
추계학술집담회	<b>주제 : Research and Clinical Practice on Dementia</b> ① Adverse Effects of Acetylcholinesterase inhibitor -이기철(인제의대) ② Clinical use of SPECT in geriatric psychiatry -이동우(충령복음병원) ③ Dementia clinic management -오병훈(연세의대)	<b>일 시</b> 2002년 9월 13일(금) 오후 5:00-6:30 <b>장 소</b> 세브란스 정신건강병원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추계학술대회	<b>노인정신의학 관련 심포지엄</b> <b>주제 : 치매의 진료유형별 관리의 실제와 문제</b> ① 대학병원에서 노인특수클리닉의 운영 -전진숙(고신의대) ② 신경정신과 의원에서 치매환자의 치료 -김성부(해운대신경정신과의원) ③ 노인전문요양원의 운영 -강홍조(초정노인병원) ④ 노인전문병원의 운영 -김인성(공주노인전문병원) ⑤ 대학전문정신병원에서 노인정신건강센터의 운영 -오병훈(연세의대)	<b>일 시</b> 2002년 10월 24일(목) 오후 3:30-5:30  <b>장 소</b> 여의도 63빌딩
Annual Scientific Symposium	① A Working Life with Dementia -Tom Arie(Univ. of Nottingham) ② Geriatric Psychiatry in Korea -박종한(대구가톨릭의대) ③ Elderly Abuse -Kong Tak-kwan(Princess Margaret Hosp) ④ Dementia in Korean Elderly -연병길(한림의대) ⑤ Advance Directive -Pan Pey-chyou(United Christian Hosp.) ⑥ Aging, Dementia, and Suicide : Conceptual and Empirical Links -Yeates Conwell(University of Rochester)	<b>일 시</b> 2002년 10월 22일(화) 오전 9:30-오후5:30  <b>장 소</b> Castle Peak Hotel, Hong Kong

## 2002년도 추계학술대회 및 개원의, 전공의 연수교육

□ 일 시 : 2002년 11월 15일(금요일) 오전 9시 30분 - 오후 5시 20분  
□ 장 소 : 강남구 역삼동 리츠칼튼호텔

### 연수강좌

#### Revisiting Dementia Clinic

09:00 - 09:30	Registration	사 회 고대관 (국제이사)
09:30 - 09:40	Welcoming speech	이정호 (이사장)
09:40 - 10:00	Keynote speech(AD ; Typical model for neuropsychiatry)	박종한 (차기이사장)
		좌 장 : 이정호 (인제의대)
10:00 - 11:00	Strategic evaluation for the treatment planning of memory impairment	김도관 (성균관대의대)
11:00 - 11:20	An update on therapy for cognition and function	김성윤 (울산의대)
11:20 - 11:40	Management of disturbed behavior	김기웅 (서울의대)
11:40 - 12:00	Case discussion, Q & A	
12:00 - 14:00	Lunch	

### 추계학술대회

#### Ageing Society and the Elderly

#### Section I : Ageing Society and Dementia

14:00 - 14:30	Ageing in Korea : Future perspective	좌 장 : 박종한 (대구가톨릭의대)
14:30 - 15:00	Dementia in Korea : Future projection	배상수 (한림의대)
15:00 - 15:30	Panel discussion	서국희 (한림의대)
		선우덕 (보사연)
		조맹제 (서울의대)
15:30 - 15:50	Coffeebreak	

#### Section II : Advances in psychiatric disorders in the elderly

15:50 - 16:20	Dementia	좌 장 : 이정호 (인제의대)
16:20 - 16:50	Depression	이창욱 (가톨릭의대)
16:50 - 17:20	Anxiety disorder	정한용 (순천향의대)
		류성곤 (한림의대)

### 정기총회

17:20 - 18:00 대한노인정신의학회 2002년도 정기총회

■ 주 관 : 대한노인정신의학회

■ 후 원 : 한국노바티스주식회사 • 한국에자이주식회사 • 한국안센주식회사

Korean Association for Geriatric Psychiatry Hong Kong  
Psychogeriatric Association Joint Meeting  
&  
Annual Scientific Symposium, Hong Kong Psychogeriatric Association

Date : 22 October 2002 (Tuesday)

Venue : Castle Peak Hospital, Tuen Mun, Hong Kong

---

Joint Meeting

---

09:30-09:45    Opening

Prof Jung Ho Lee, President, KAGP  
Prof Helen Chiu, President, HKPGA

09:45-10:30    Keynote Speech (A Working Life with Dementia)

Prof Tom Arie, CBE  
(University of Nottingham, UK)

10:30-10:45    Tea Break

10:45-12:00    Geriatric Psychiatry in Korea  
  
Elder Abuse

Prof Jonghan Park, MD, PhD  
(Taegu Catholic University, Korea)  
Dr Kong Tak-kwan  
(Princess Margaret Hospital, HK)

12:00-14:30    Luncheon Roundtables (Invited guests & HKPGA Members only)

14:30-15:45    Dementia in Korean Elderly  
  
Advance Directive

Prof Byeong Kil Yeon, MD, PhD  
(Hallym University, Korea)  
Dr Pan Pey-chyou  
(United Christian Hospital, HK)

15:45-16:15    Tea Break

---

Annual Scientific Symposium

---

16:15-17:30    Aging, Dementia, and Suicide: Conceptual and Empirical Links

Prof Yeates Conwell, MD  
(University of Rochester School of  
Medicine and Dentistry, USA)

## • 총무이사회 소식 •

- 2002년 7월 4일 2차 실행이사회가 개최되었습니다.
  - 추계학술대회 및 전공의 연수교육, IPA regional meeting에 홍콩과의 합의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
  - IPA regional meeting task force team 구성에 관한 논의가 있었습.
  - 회칙개정에 관한 논의가 있었음(대한치매노인정신의학회로의 개칭).
  - 치매 책자 발간과 관련된 논의가 있었습.
- 2002년 10월 추계학술집담회가 광주 세브란스정신건강병원에서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습니다.
- 2002년 8월 7일자 대한의학회에서 본 학회 회칙개정에 대해 “치매”라는 말을 삭제한 조건부 회칙개정을 허락 하였습니다. 결국 학회명칭 개정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2002년 10월 19일자로 대한의학회에 향후 치매를 포함한 어떠한 학회명칭 개정이나 학회등록에 관련된 일관 된 방침인지에 관하여 내용증명 서신을 발송하였습니다.
- 2002년 10월 22일자 IPA regional meeting에 관하여 한국에자이와 한국얀센과 협의가 있었습니다.

## • 학술이사회 소식 •

- 2002년 9월 13일 경기도 광주 세브란스정신건강병원에서 다음과 같은 연제로 추계학술집담회가 개최되었습니다.
 

① Adverse Effects of Acetylcholinesterase inhibitor	-이기철 (인제의대)
② Clinical use of SPECT in geriatric psychiatry	-이동우 (충명복음병원)
③ Dementia clinic management	-오병훈 (연세의대)

## • 교육이사회 소식 •

- 그동안 대한노인정신의학회 산하 Task Force 위원회에서는 "우리나라 노인정신의학 평가도구 모음집" 제작을 위하여 그동안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 후보 평가도구들의 선정, 선정된 평가도구들에 대한 Task Force 위원회에서의 검토, 표준화 연구가 필요한 평가도구에 대한 표준화 연구 등의 과정을 마치고, 금년 11 월 중 "우리나라 노인정신의학 평가도구 모음집"을 간행할 예정입니다.
- "Revisiting Dementia Clinic"의 주제 하에 개원의 및 전공의를 위한 노인정신의학 연수교육을 시행합니다.

## • 국제이사회 소식 •

### • "IPA Regional Meeting 2004, Seoul, Korea 안내

IPA Regional Meeting 2004를 위한 최종적인 점검회의가 "IPA Regional Meeting Seoul, Korea Planning Meeting Agenda October 2002"란 주제 하에 IPA의 Joel Sadavoy(Chair, Meeting Committee)와 국내에서 이정호, 박종한, 연병길, 오병훈, 서국희, 고대관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002년 10월 19일 토요일 호텔 신라 3층 라일락룸에서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어 2004년 10월 6일(목)~8일(토)에 걸쳐 대한민국 서울에서 IPA Regional Meeting 2004가 개최되는 것이 거의 확정단계에 들어갔으며, IPA Regional Meeting, 2002, Hong Kong IPA Board Meeting에서 최종적인 인준절차를 거치는 작업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일요일 저녁에는 이정호 이사장 초청의 저녁이 Joel Sadavoy, Diane Nickolson(Deputy Director)과 한국의 대한노인정신의학회 실행이사들과의 화기애애한 만남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이로써 지난 2001년 IPA, Nice에서부터 대한노인정신의학회가 "IPA Regional Meeting 2004, Seoul, Korea" 개최유치를 위한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노력해 주신 모든 회원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한국 노인정신의학의 발전을 위해 더 큰 회원여러분의 성원이 계시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는 이정호 이사장의 격려가 있었습니다.

### 노인정신의학회 관련 해외모임 및 학회안내

- 2003년 3월 14일 제16차 미국노인정신의학회, 하와이 호놀룰루  
Email : aagp@aagpgpa.org
- 2003년 4월 1-4일 국제노인정신의학회 유럽지역회의, 스위스 제네바  
Email : ipa@ipa-online.org
- 2003년 5월 8-12일 제6차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국제회의, 스페인 세빌리아  
Email : adpd@kenes.com <http://www.kenes.com/adpd>
- 2003년 5월 15-18일 미국노년기학회 연차대회, 미국 볼티모어  
Email : info.amger@americangeriatrics.org <http://www.americangeriatrics.org>
- 2003년 5월 26-30일 제7차 국제노년기학회 아시아 오세아니아 지역회의, 일본 요코하마  
Email : ahomma@tmig.or.jp
- 2003년 8월 17-22일 제 11차 국제노인정신의학회, 미국 시카고  
Email : chicago2003@ipa-online.org
- 2003년 11월 21-25일 제36차 미국노년의학회의, 미국 샌디에고  
Email : geron@geron.org
- 2003년 11월 24-28일 제7차 아시아 오세아니아 정신의학회의, 일본 도쿄  
Web [www.convention.co.jp/7thaog](http://www.convention.co.jp/7thaog). E-mail: [7thaog@convention.co.jp](mailto:7thaog@convention.co.jp)
- 2004년 3월 12-15일 제17차 미국노인정신의학회, 미국 볼티모어  
Email : jschmidt@aagponline.org
- 2005년 8월 14-19일 제12차 국제노인정신의학회, 스웨덴 스톡홀름  
Email : stockholm2005@ipa-online.org

## • 무임소이사회 소식 •

### 신간안내

- ❑ **A Handbook of Dementia Care**  
-Cantley, Caroline (Edt)/Taylor & Francis/2001년 12월
- ❑ **A Psychology of Orientation**  
-Edwards, Allen Jack/Greenwood Pub Group/2002년 03월
- ❑ **Dementia and Wandering Behavior**  
-Silverstein, Nina M/Flaherty, Gerald/Tobin, Terri S/Tobin, Terri Salmons/Springer Pub Co/2002년 04월
- ❑ **Dementia Praecox and Paraphrenia**  
-Kraepelin, Emil/Barclay, R. Mary (Trn)/Robertson, George M(Edt)/Univ of Chicago Pr(Sd)/2002년 07월
- ❑ **Evidence Based Dementia Practice**  
-Qizilbash, Nawab (Edt)/Broadaty, Henry/Chiu, Helena/Kaye, Jeffrey/Blackwell Science Inc/2002년 06월
- ❑ **Healing Arts Therapies and Person-Centered Dementia Care**  
-Innes, Anthea (Edt)/Hatfield, Karen (Edt)/Taylor & Francis/2001년 10월
- ❑ **Magnetic Resonance in Dementia**  
-Valk, J/Barkhof, Frederik/Scheltens, Philip/Valk, Jaap/Barkhof, F/Springer Verlag/2002년 01월
- ❑ **The Perspectives of People With Dementia**  
-Wilkinson, Heather/Taylor & Francis/2002년 01월
- ❑ **Parkinson's Disease 300 Tips for Making Life Easier**  
-Schwarz, Shelley Peterman/Demos Medical Pub/2002년 09월
- ❑ **Psychiatric and Cognitive Disorders in Parkinson Disease**  
-Starkstein, Sergio/Merello, Marcelo/Cambridge Univ Pr (Sd)/2002년 07월
- ❑ **Parkinson's Disease**  
-Factor, Stewart A. (Edt)/Weiner, William J. Md./Demos Medical Pub/2002년 06월
- ❑ **Mapping the Progress of Alzheimer's and Parkinson's Disease**  
-Mizuno, Yoshikuni (Edt)/Fisher, Abraham (Edt)/Hanin, Israel (Edt)/Kluwer Academic Pub/2002년 03월
- ❑ **When Parkinson's Strikes Early**  
-Blake-Krebs, Barbara (Edt)/Herman, Linda/Blake-Krebs, Barbara/Herman, Linda (Edt)/Pub Group West/2002년 02월
- ❑ **Mayo Clinic on Alzheimer's Disease**  
-Petersen, Ronald C. M.D. (Edt)/Mayo Clinic (Cor)/Kensington Pub Corp/2002년 09월
- ❑ **New Hope for People With Alzheimer's and Their Caregivers**  
-Shimer, Porter/Bludau, Juergen H. A. (Frw)/Random House/2002년 06월
- ❑ **Alzheimer Solutions**  
-Knittweis, Jim/Harch, Judith/Lucid Pr/2002년 06월
- ❑ **The Person With Alzheimer's Disease**  
-Harris, Phyllis Braudy (Edt)/Johns Hopkins Univ Pr/2002년 05월
- ❑ **Allie Learns About Alzheimer's Disease**  
-Gosselin, Kim/Dineen, Tom/Jayjo Books/2002년 03월
- ❑ **Losing My Mind**  
-Debaggio, Thomas/Smith, Cotter (Nrt)/Simon & Schuster (A)/2002년 03월
- ❑ **An Alzheimer's Guide**  
-Nekola, Pat/Catering by Design/2002년 02월

## · 해외연수기 ·

## 듀크대학 정신과 연수를 다녀와서

김도훈 (한림의대 정신과)

1999년도 한국과학재단 박사후 연수자에 선발되었지만 사정상 출발이 지연되어 2000년 8월에 미국에 도착하였다. 공항을 나서면서 여름의 습기 찬 무더위가 피부에 와 닿으며 첫눈에 들어왔던 파란 노스캐롤라이나의 하늘이 나의 미국 연수생활을 환영해 주는듯했다.

노스캐롤라이나의 하늘은 옅은 파란색의 격조 있고 은은한 매력 때문에 'Carolina blue'라는 독특한 색깔로 유명하다. 이곳 University of Northcarolina at Chapel Hill 대학 심벌의 배경색이기도 하다. 나의 아내는 이 대학에서 1년 동안 공중보건학 석사과정을 이수했고, 본인은 인접한 듀크대학병원 정신과에서 1년간 연수를 하였다. 1년의 미국생활은 정착하는데 무척 고생하였고 문화와 언어 차이로 인한 고립감으로 얼마간 애를 먹기도 하였지만 다른 문화권속에서 새로운 경험과 생활을 통해서 보다 폭넓은 시야와 안목을 기르는데 큰 도움이 된 것 같다. 아내가 학교에 다니는 관계로 아이를 돌보는 일은 나의 가장 큰 사명(?)이 되었다. 5살 먹은 딸아이는 처음에 daycare center에 가기를 거부해서 처음 며칠은 함께 유치원에서 보내야 했다. 며칠간 아이와 함께 고생하는 모습을 보기가 딱했던지 유치원 원장이 면담을 하면서 아이를 놓고 그냥 가라고 하면서 자신의 아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충고를 해 주었다. 그 후로 눈 딱 감고 울고 보치는 아이를 그대로 놓고 갔는데 얼마간 지나니 딸아이가 먼저 아빠 안녕하고 웃으면서 유치원을 뛰어 들어가게 되었다. 한국에서 상상도 못했던 아이를 돌보고 먹이고 입히고 재우는 일의 많은 부분을 하려하니 처음에는 애초에 계획에 없던 소아정신과 실습을 위해 미국에 왔나하는 처량한 느낌도 같게 되었다. 가정에서 여성의 역할이 얼마나 소중한지 귀한 일인가를 몸소 알게 되었다.

내가 연수하였던 듀크대학병원은 미국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우수한 대학병원 중의 하나이지만 이미 한국에서 최근에 지어진 크고 웅장한 병원을 익히 보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병원의 시설이나 환경은 그리 인상 깊지 않았다. 그러나 연구를 위한 풍부한 인적 구성, 잘 정돈된 연구시스템과 환경은 역시 미국적 규모와 스케일을 자랑하였다. Spirituality와 노인 우울증 분야에서 새로운 연구영역을 개척하면서 이 분야에서 베스트셀러인 여러 권의 저서를 쓴 노인 정신과 교수인 Dr.



Koenig는 일주일에 수요일에만 진료를 하고 나머지는 전적으로 연구에만 몰두하고 있었다. 경쟁이 심하지만 수혜 시에는 다년간에 걸쳐 풍부한 연구비를 지원받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첫 6개월은 과학재단에 제출한 계획서대로 듀크대학 정신과 neuropharmacology lab에서 Dr. Ellinwood와 Dr. Tong Lee 지도 하에 fast cyclic scan voltammetry를 이용해서 백서의 nucleus accumbens 에서 약물을 투여하였을 때 dopamine 분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를 하게 되었다. voltammetry라는 기계도 생소하였지만 전기생리학적 원리를 이용하여 자극시 발생하는 도파민의 분비와 흡수의 과정을 수초간의 짧은 시간동안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다는 경이감으로 처음의 기술습득의 어려운 과정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다. 6개월간 기초실험에 매달리면서 어느 정도 논문에 필요한 자료를 얻은 후에는 평소에 관심이 많았던 노인우울증에 대한 경험을 살리기 위해 임상연구에도 참여하게 되었다.

듀크대학은 전통적으로 노인학(geriatrics)이 강하다. 지금 치매의 원인으로 잘 알려진  $\beta$ -amyloid 단백을 처음으로 밝혀낸 곳이기도 하다. 나는 5-6년 전부터 미국 NIH로부터 연구비를 받아 운영되고 있었던 Clinical Mental Health Research Center(CMHRC)에서 노인우울증에서 Hippocampus 부피와 apolipoprotein E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이 주제는 한국에서 한때 박사학위 논문의 주제로 심각하게 고려하다가 비용 및 제반 여건 문제 때문에 포기 했었는데 미국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어서 매우 기뻐다. 노인우울증의 대가인 Dr. Krishnan과 Dr. Steffens의 친절한 지도아래 비교적 짧은 시간에 비교적 좋은 논문에 투고까지 할 수 있었는데 잘 정리된 연구 데이터와 일사불란한 팀워크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정신과와 방사선과 임상연구자, 뇌영상 분석가, 통계학자, 연구 코디네이터 등등 20명 정도의 사람이 노인 우울증 연구에 참여하면서 갖자 유기적인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다.

한 가지 인상 깊었던 것은 미국의 임상연구는 임상연구에 드는 모든 제반비용을 연구비에서 부족함이 없이 충당할 수 있도록 배려된다는 점이었다. 임상연구에도 참여하면서 틈나는 대로 듀크대학이 있는 Durham에서 1시간 거리에 있으면서 듀크의대 노인정신과와 협력관계에 있는 주립 정신병원에서 열리는 노인정신과 세미나에 참여하였다. 환자 진료 시스템은 한국과 비슷하였지만 각 임상가들이 보다 세분화된 자신의 진료 및 연구 영역을 가지고 일에 매진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 현실적인 여건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보다 경쟁력 있는 연구와 진료를 위해서 한국도 이러한 연구 및 진료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될 것 같았다.

미국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경험은 미국사람들의 친절이다. 몇 번의 같은 경험을 반복했는데 길이나 캠퍼스에서 찾아가는 곳을 물으면 내가 안쓰러워 보였는지 모르겠지만 5분이고 10분이고

함께 걸어가서 내가 찾는 장소를 가르쳐 주었다. 이런 경험을 몇 번하고 나서 그동안 나 자신에 대한 성찰과 반성을 하게 되었다. 넓은 국토와 쾌적한 환경에서 오는 삶의 여유, 남을 배려하는 교육의 영향이 이런 친절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인 것 같다.

이글을 쓰고 있자니 연수기간 중에 1주일간 중국 의료봉사를 다녀왔던 일, 정착하는 데 많은 어려움 속에서 도와주었던 미국 한인교회 식구들, 의사소통의 어려움 때문에 겪었던 많은 웃지 못 할 해프닝들, 여권을 도둑을 맞아서 난감했던 기억, 거의 불가능했던 기독교상담 세미나에 극적으로 참여하게 된 일, 여행 중에 느꼈던 광활하고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들이 스쳐지나 간다. 항상 알게 모르게 이 모든 일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손길들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된다.

## • 학회 참관기 •

### 제 8차 국제치매학회를 다녀와서

김 재 현 (원광의대 정신과)

제8차 알츠하이머 치매와 이와 관련된 질병에 관한 국제학회(The 8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lzheimer's Disease and Related Disorders)가 2002년 7월 20일에서 25일까지 6일간 스웨덴 스톡홀름의 International Fair에서 열렸다. 지난해 박종한 선생님께서부터 세계 치매학회에 같이 참석하자는 말씀을 듣고 포스트를 제출했었고 노인 정신과 학회의 다른 10분 선생님들과 함께 모두 12명이 떠났다.

학회의 현지강령은 Bringing Together the World's Leading Experts in Dementia Research로 세계 각국 치매 전문가들이 모두 모인 듯한 분위기로 다른 학회들과는 다르게 기초의학을 하는 분들도 많이 참석하였다.

학회 기간 중 치매, 치매와 관련된 질환의 원인, 역학, 생물학, 유전학, 사회-행동학적 주제, 진단 및 치료의 최신지견 등에 관한 강의와 심포지움이 매일 있었으며, 특히 병리와 치료에 관한 기초의 학자들의 발표가 많이 있었다. 임상적인 것을 벗어난 것은 알아듣기가 힘든 점도 있었으나 치매 치료에 대한 향후 세계적인 추세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7월 21일 일요일 아침 8시부터 8시 30분까지 conference welcome을 시작으로 본 학회가 시작

되었다. 참가국수는 정확히 알 수가 없었으나 학회장의 말로 6개의 plenary session과 22개의 symposia를 위해 150명의 과학자를 초청하였으며, 사전 등록자 3500명 이상, 총 참석자 4000명 이상 일 것이라 하였고 구연과 포스트를 위해서 제출된 초록이 2000편에 이른다 하였다. 과연 학회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었다.

학회의 일정은 아침 8시 30분 plenary session으로 시작하여 오전에는 symposium, 오후에는 poster presentation과 oral presentation의 순으로 전개되었으며 저녁에는 corporate satellite symposium이 있었다.

## 오전

Plenary Sessions에서는 매일 8시 30분부터 10시까지 3명의 발표자가 30분씩 발표하였다. 큰 홀에 학회에 참석한 전원이 다 듣는 강의로 매일 참석하였다.

Symposia는 plenary session이 끝난 후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4군데에서 열렸는데 각 session에는 6명의 발표자가 17분씩 발표하였으며 세션이 끝날 때마다 질문을 하는 시간이 있었다. Symposium마다 주제가 달라서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하나를 버려야 하는 데 나는 주로 치료에 관계되는 symposium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연제가 달라도 중복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었다.

AChEIs는 증후의 조절일 뿐 neuroprotective effect는 없는 것으로 향후 치료방향으로서 최근 중추신경계의 APP/A $\beta$  amyloidogenic pathway에 대한 4가지 접근 방법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gamma$ -Secretase Inhibition, A $\beta$ -chelators, A $\beta$  Immunization, Cholesterol and A $\beta$  Metabolism에 대한 이론적 근거와 문제점, 최근 발달 상황에 대한 발표들이 있었으며, 현재 사용되기 시작한 NMDA receptor antagonist인 Memantine은 tau의 phosphorylation을 막아 neuronal degeneration을 저지하여 AD의 진행을 막는데 매우 효과적이며, AChEIs와 병용할 수 있는 약물로 개발되었다는 발표들이 있었다. 치매의 치료에 대한 향후의 세계적인 추세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그러나 4번째 plenary session에서 A $\beta$ 나 염증반응은 oxidative damage를 감소시키기 위한 생체의 반응으로 SP나 NFT와 같은 AD의 lesion은 실제 oxidative damage를 감소시키는 것인데 단순히 A $\beta$ 를 감소시키거나 염증반응을 방해하면 더 질병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 같은 병적인 현상도 그 나름대로는 생체가 살아남기 위해서 적응하는 과정 즉, disease-related homeostatic balance라는 발표가 있었다. 정신병리도 잘못된 원인을 가지고 살아오면서 적응하는 과정 중에서 발생한다는 고전적인 paradigm을 확인하는 듯하여 자연의 섭리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으며, 치료에 있어 원인적인 중재가 얼마나 중요한가하는 것과 더불어 앞으로 치료

의 발전방향이 어떻게 전개될지 의문도 커졌다.

또 하나 흥미있었던 것은 Subcortical dementia and related conditions에 대한 것이다. 이 영역은 노인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까지만 하여도 신경과 영역이라고 신경도 쓰지 않았었는데, 노인을 치료하면서 관심을 가지게 된 분야이다. 이날 발표 중 특히 흥미를 끌었던 것은 Dementia in Parkinson's Disease session이었는데, AD와 PD는 신경병리학적 자료, 신경화학적 자료, 역학 및 유전학적 자료들을 볼 때 서로 연관이 있는데 그 이유로 첫째, AD와 PD는 synergistic neurodegenerative pathway에 의해서 서로가 서로의 risk factor가 된다는 것, 둘째, AD와 PD는 공통된 degenerative process이나 유전환경적 상황에 따라 다른 표현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 셋째, AD와 PD의 원인은 서로 다른 gene이나 서로 인접해 있어서 같이 유전된다는 세 가지의 가설을 이야기하였다. 이는 평소 AD를 치료하면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동일환자에서 PD가 나타나 는 것 등으로 그 상관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던 터였으며 단순히 degeneration이 진행되어서 AD에서 PD로 진행이 된다는 정도로만 알고 있던 나에게 다른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Issues in Treating Dementia에 대한 symposium에 참여하여서는 Preventive Strategies in Dementia연제에 대해서 들었는데 AD의 병리 중 일부는 vascular origin으로 cardiovascular disease를 감소시키는 strategy를 사용하여서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 내용을 작년 국내학회에서 처음 접하며 관심을 가졌었는데 국제학회에서 update되어 정리 발표된 것을 들으며 교통과 통신이 발달한 이 시대에 열의와 이해의 차가 있을 지언정 거리의 차이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 오후

Poster Presentations 들은 symposium이 끝난 후 12시 30분부터 2시 45분까지 점심시간에 열렸으며 매일 400편 이상의 poster가 발표되었다. 보통은 학회에 참석하여 강의를 들으며 제약회사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먹었는데 이번에는 전혀 식사가 제공되지 않았다. 발표자나 토론자 모두 햄버거나 샌드위치 등을 직접 사 먹으면서 토론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그 열기는 어느 학회에서 하는 토론을 훨씬 능가했다.

한국인들도 많이 발표하였는데 필자의 경우 첫날은 한국인 발표자만 찾아다녔는데도 시간이 부족했다. 발표하는 분들은 임상보다 기초에서 많이 와 있었고 외국으로 연수 온 상태에서 발표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벤처기업에서 연구원으로 있다고 하는 약사 분도 발표를 하고 있었는데 여자 혼자서 스웨덴까지 와 발표한다는 것이 대견스럽게(?) 여겨졌다.

두 번째 날에는 필자가 poster를 발표하였는데 전주 노인 복지 병원의 이남진 선생과 같이 진료하였던 환자를 정리하여 Psychotic symptoms induced by cholinestrase inhibitors in

Alzheimer's dementia(알츠하이머 치매에서 콜린에스테레이즈 억제제에 의해 유발된 정신병적 증상)을 발표하였다. 토론된 내용에 임상에서 가끔 경험하는 현상이지만 세계적으로 처음 발표되는 case라는 것과 진단에서 혹시 Lewy body dementia가 아닌가 하는 점, 그리고 제목과 내용에서 정신증상은 치매에 의한 것이지 AChEIs에 의해 유발된 것이 아니라 재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토론 등이 있었다. 이 날 토론에서 있었던 것들은 앞으로 출판할 때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다소 부족하더라도 발표를 하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평가와 보충을 받을 수 있어 나의 공부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다시 느꼈고, 또 평소에 혼자 발표할 때보다 공저자와 같이 발표하게 되니 막간에 서로 얘기도 하고 서 있기가 훨씬 쉬웠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속담이 괜한 말이 아님을 다시 느꼈다. 또한 학회에서 여러 번 발표해 보았지만 이렇게 포스트를 붙일 때부터 끝날 시간까지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고 토론 한 것은 처음 있었던 일로 매우 인상적이었다. 그리고 한 편의 좋은 '임상 증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지, 환자를 열심히 잘 진료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Oral Presentations는 3시부터 5시까지 이 6개방에서 열렸으며 각 세션당 8명의 연자가 12분의 발표와 3분간의 질의 문답시간이 있었다. plenary session이나 symposium에서 있었던 것이 중복 발표되기도 하고 시간상 피로가 겹쳐 듣기가 쉽지 않았다.

#### 저녁시간들 그리고 tour

첫날 저녁 Skansen에서 열리는 welcome reception에 참여하였다. 추적추적 내리는 비를 맞으며 참석한 연회는 요란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듯이 별로 볼 것도 먹을 것도 없었다. '백야의 땅 (midnight sun)'에서 10시까지 열리는 연회였지만 우리 일행은 빨리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와 쉬었다. 쉬면서 다음날을 위해 program집을 보다가 여왕의 축사를 보게되었다. 지하철을 타고 1시간 가량 걸려 참석하는 초행길이라 늦어서 못 들었는지 모르나 그 축사에 '자신의 어머니가 치매에 걸렸고 그래서 이런 분들을 돌볼 간호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여 Silvia Home을 설립, 간호사들을 교육시키고 있다는 내용'이 있었다. 이는 레이건 대통령이 스스로가 치매에 걸렸다는 것을 자국민 앞에서 발표했던 것만큼이나 인상적이었다. 우리는 아직도 병을 숨기기에 급급한데!?

둘째 날 저녁, 박종한 선생님과 함께 Elan Corporation에서 하는 Satellite Symposium에 참여하였다. 제목이 Progress on Potential Treatments for Alzheimer's Disease Based upon the Amyloid Hypothesis로 vaccination에 대한 것들이었으며, PhD들이 주로 발표하는 기초적인 것이라 내용의 이해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데다 참가 신청을 늦게 하여 연자와 슬라이드를 볼 수 없는 자리였고, hearing의 부족을 slide에 의존해야 하는 입장에서 더욱 어려움이 컸었다. 그냥 좋

은 저녁을 먹는 것에 만족해야 했다.

네 번째 날에는 김광수 선생님과 저녁식사가 있었다. 항상 해외학회에서 날을 잡아 후배들에게 멋있는 식당에서 와인을 곁들인 식사를 사주시곤 했는데 이번에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번에는 노벨상 수여 후 뒷풀이를 하는 시청 지하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를 했다. 동형의 동굴처럼 생긴 식당에서 남자 웨이터들의 서빙을 받으며 하는 식사, 흔히 먹던 음식이 아니어서 지금은 이름도 잊어버린 음식들, 그 독특하였던 분위기. 이는 스웨덴에 와서 노벨상 시상식을 하는 스톡홀름 시청과 그 식당에서 식사를 하였다는 것과 함께 내 뇌리에 오랫동안 남아 있을 것이다.

### 스톡홀름 시내 도보 관광

우리 일행의 숙소는 발틱해가 바로 인접한 곳으로 학회장에 가기 위해서는 지하철로 1시간 가량의 거리에 있었다. 화요일과 수요일 오후에는 박종한, 연병길 선생님과 시내 도보 관광을 했다. 지도와 카메라를 들고 안내와 사진 찍기를 하신 지도자 동지 연병길 선생님, 사전을 들고 다니면서 확인하곤 하시던 박종한 선생님, 그리고 body guard(?)인 필자 등은 환상의 콤비였다. 며칠 간 학회장을 다니며 시내를 걷고 지하철을 갈아타고 했지라 외국이라 처음 와 본다는 부담없이 시내를 돌아볼 수 있었다. 13세기 초 세워져 오래된 마을이라는 의미의 Gamla Stan의 좁은 자갈길, 왕궁, 성당, 해변 사람들의 한가로운 낚시하는 모습, 배들이 떠다니는 아름다운 모습과 깨끗한 시가지의 편안했던 느낌, 또한 바이킹 모양의 유람선을 타고 식사했던 추억은 아직도 내 마음을 설레게 한다. 그리고 시내에서는 수 십 가지의 항공사진 전시회가 있었는데 그 역시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우리는 그것들을 사전을 찾아가며 설명과 함께 보았다. 여기에 독자들을 위한 팁으로 그 항공사진의 인터넷주소(<http://www.yannarthusbertrand.com/us/photogra/index.htm>)를 올리니 독자 여러분들은 참고하여 즐기시기 바란다.

끝으로 학회 이사장님으로서 우리 전체를 이끄셨던 이정호 선생님, 사전을 들고 다니면서 모르는 것이 있으면 영어도 독어도 다 찾아보며 알아보고 싶은 것이 있으면 혼자서라도 찾아 가보는 탐구심을 가지신 박종한 선생님, 항상 상대를 편안하게 대해주며 사진을 찍어 주셨던 우리들의 지도자 동지 연병길 선생님, 노벨 수상자들의 뒷풀이 식당에서 저녁을 사주셨던 김광수 선생님, 가는 곳곳에 많은 인연들이 있어서 우리들에게 맛있는 김밥을 먹게 해준 기백선 선생님, 일행 중에 힘든 일이 있을 때 끝까지 챙겨주시던 오병훈·전진숙 선생님, 항상 재미있는 말과 태도로 좌중을 웃게 하였던 김영돈·이창욱 선생님, 박학한 미식이 서국희 선생님, 배낭하나만 달랑 메고 같이 참석하였던 이정환 선생님, 불편하지 않게 학회에 참석하고 여행할 수 있게 도와준 최성구 선생님 등 모두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린다.

## • 회원동정 •

### → 곽동일 회원

고려의대 명예교수 겸 부산 대남병원장으로 취임하였습니다

### → 오병훈 회원(부이사장)

-WPA (Aug. 24-29, 2002, 요코하마, 일본)에서 전진숙 회원과 공동으로 심포지움 "Difficult Behavior in Dementia"를 주관하였으며, "Cognition and Dementia"에 토론자로 참석하였습니다.

-제 3회 WHO 협력 정신사회재활 국제학술대회 - 심포지움 : 노인정신보건을 위한 지역 사회전략 (OCT. 18-19, 2002, 대한민국)에서 한국노인정신보건의 현주소와 미래에 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2002년 10월 10일부터 12일까지 Spain의 Barcelona에서 열린 ICGP(International College of Geriatric Psychoneuropharmacology)에 한국대표로 참석하였습니다.

### → 서국희 회원(학술이사)

-Ajit Shah, S.Murthy을 공동저자로 한 'Is mental health economics important in geriatric psychiatry in developing countries?' 제하의 논문이 International Journal of Geriatric Psychiatry 2002년 8월호에 실렸습니다.

-일본 요코하마에서 8월 24일부터 29일 사이에 열린 World Psychiatric Association의 국제학회에서 Symposium 'Dementia in Pacific Rim Countries'의 좌장을 맡았고, "Dementia Epidemiology and health care delivery in Korea" 제하의 연제를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Symposium "The ASIADEP Consortium : Late-life depression and dementia in Southeast Asia"에서 "Incidence and survival of dementia, Alzheimer's disease and Vascular dementia in Korea"제하의 연제를 발표 하였습니다.

-홍콩에서 10월 23일부터 26일 사이에 열리는 세계노인정신의학회 지역학술대회(IPA regional meeting)에서 초청연자로 Symposium Health care delivery에서 'Mental health in Korean Elderly : Past, Present and Future'제하의 연제를 발표하였고,

Symposium Elderly suicide에서 'Elderly suicide in Korea' 제하의 연제를 발표하였으며, 좌장으로 Symposium 'Assessment of Dementia'를 주재하였습니다.

▶ 정한용 회원(기획이사)

-2002년 7월 21일 Stockholm(Sweden)에서 열렸던 8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lzheimer's related disorders에서 "Therapeutic effect of amantadine in traumatic brain injury patients: two cases" 라는 제목으로 Poster presentation 하였습니다.

→ 이기철 회원(총무이사), 정홍경 회원

이&정 신경정신과의를원을 개원하였습니다

서울 노원구 상계6동 746-3 전화) 939-0909

→ 신입회원 안내

나규일 회원 : 대전시 서구 장안동 513-1 (한마음정신병원)

문석우 회원 : 경기도 의왕시 왕곡동 280-1 (계요노인전문병원)



대한노인정신의학회 임원진(2001-2002)

	TEL	FAX	E-mail
고 문 : 광동일	02-920-5940/5815	02-927-2836	
유계준	031-765-4478	031-764-8662	kipsy@yumc.yonsei.ac.kr
신석철	042-220-7287	042-220-7886	shinsc@hanbat.chungnam.ac.kr
이형영	062-220-6140	062-225-2351	hylee@chonnam.ac.kr
이 사 장 : 이정호	02-950-1906	02-936-8069	leedharmas@sanggyepaik.or.kr
차기이사장 : 박종한	053-650-4785	053-623-1694	jhpark1@cuth.cataegu.ac.kr
감 사 : 이상연	02-2002-8360	02-722-3872	npisy@hanmail.net
장필립	055-536-4858	055-536-0956	sparh@chollian.net
부 이사장 : 정인파	02-818-6738	02-852-5794/1937	junginkwa@hanmail.net
오병훈	031-765-0442	031-761-7582	drobh@chollian.net
총무이사 : 이기철	02-950-1921	02-936-8069	baseiron@sanggyepaik.or.kr
위 원 : 정홍경	02-950-1087	02-936-8069	mind2minds@hanmail.net
학술이사 : 서국희	02-2639-5483	02-678-5790	suhgh@chollian.net
위 원 : 김승현	02-818-6740	02-852-1937	shyun@kumc.or.kr
배재남	032-890-3474	032-890-3559	jinbae@inha.ac.kr
민경준	02-2260-2282	02-2279-8474	mind61@chollian.net
류성근	041-544-4000		sgryu@kornet.net
기획이사 : 정한용	032-621-5232	032-621-5016	hanyjung@schbc.ac.kr
위 원 : 박인준	041-579-9997	041-579-9998	brain-park@hanmail.net
이동진	031-374-0077	031-374-4512	LIDJ@chollian.net
김동욱	031-761-1890	031-764-8662	drdw@medigate.net
교육이사 : 김도관	02-3410-3582	02-3410-0050	paulkim@smc.samsung.co.kr
위 원 : 이동우	031-592-6661		dwlee@medigate.net
신윤식	031-765-0442		memory99@dreamwiz.com
김성환	02-3410-3589		zapcho@yahoo.co.kr
섭외이사 : 오강섭	02-2001-2217	02-2001-2211	ks2485@lycos.co.kr
위 원 : 남범우	043-845-2501		Nempty@yahoo.com
양상중	054-821-1101		
국제이사 : 고대관	02-2270-0912	02-2270-0344	gogreat@shinbiro.com
위 원 : 김인성	041-733-2191	041-733-2197	kis6109@chollian.net
이승환	031-910-7262	031-910-7268	lshpss@ilsanpaik.ac.kr
무임소이사 : 김영돈	042-259-1255	042-259-1771	ydkim@emc.euji.ac.kr
평 이 사 회 : 연병길	02-2224-2268	02-487-0544	knpa@www.hallym.or.kr
윤도준	02-958-8551	02-957-1997	behav@unitel.co.kr
전진숙	051-250-5070	051-241-5069	cheonjs@kosin.md
이민수	02-920-5354, 5336	02-923-3507	leeminso@unitel.co.kr
이 철	02-590-2722	02-594-3870	cle512@cmc.cuk.ac.kr
기백석	02-2260-2254	02-2279-8474	cauhpkbs@cau.ac.kr
김영훈	051-890-6387	051-894-2532	insykhkim@ijnc.inje.ac.kr
한일우	031-2880-600,500	031-2880-519	geriwoo@chollian.net

	TEL	FAX	E-mail
<b>학회지편집위원회</b>			
편집위원장 : 조맹제	02-760-3155	02-744-7241	mjcho@plaza.snu.ac.kr
위 원 : 한일우	031-2880-600/500	031-2880-519	geriwoo@chollian.net
김영돈	042-259-1255	042-259-1771	ydkim@emc.eulji.ac.kr
김도관	02-3410-3582	02-3410-0050	paulkim@smc.samsung.co.kr
이민수	02-920-5354,5336	02-923-3507	leeminso@unitel.co.kr
서국희	02-2639-5483	02-678-5790	suhgh@chollian.net
박종한	053-650-4785	053-623-1694	jhpark1@cuth.cataegu.ac.kr
오병훈	032-765-0442	032-761-7582	drobh@chollian.net
김창현	02-2260-7296	02-2268-5028	
신영민	02-3430-0515	02-554-9809	

• 「노인정신의학(The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Geriatric Psychiatry)」 투고 규정안내 •

대한노인정신의학회에서는 매년 2회(6월, 12월) 연구학회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많은 투고를 바랍니다.

**ⅢⅢ 논문 접수처 ⅢⅢ**

110-744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28  
서울대학교병원 신경정신과  
**조 맹 제 교수**  
TEL : 02-760-3155  
FAX : 02-744-7241

■ 논문제출요령 및 기타 공지사항

- 투고요령은 개정된 ( '97. 1) 신경정신의학회지와 동일하다.
- 논문원고는 마감일 없이 수시로 접수한다.
- 원고는 A4용지에 2열 간격으로 인쇄한 것을 2부 논문 접수처로 제출한다.
- 동일한 내용의 원고를 3.5인치 디스켓으로 함께 제출한다.

• 회비납부 안내 •

**대한노인정신의학회 온라인 계좌번호**

예금주 : 이 기 철(연회비 : 2만원)

농협(상계지점) : 040-12-188244

☞ 변동사항이 있거나 회비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는  
회원께서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041-579-9997, 전승) 041-579-9998 박인준  
전화) 031-372-9830, 전승) 031-372-9834 이동진  
전화) 032-621-5232 전승) 032-621-5016 정한용



2002년 10월 20일

IPA의 Joel Sadavoy(Chair, Meeting Committee)와 Diane Nickolson(Deputy Director)과의 만남